



장춘 주택장식박람회, 스마트가구 인기 많아

3월 7일, 2025년 장춘 첫 량장 주택장식박람회(蓝装家博会)가 동북아국제박람센터에서 개막되어 9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는 현재 주택 장식 영역의 발전 추세와 결부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는 장춘지역 입주자들에게 더 많은 주택 장식 선택을 제공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박람회는 규모가 크고 전시품이 구전하며 활동도 풍부했다.

박람회 전시 품목은 메이디(美的), 하이얼, 방태(方太), 오푸(欧普) 등 유명 브랜드를 포함했으며 주택 맞춤 제작(全屋定制), 스마트 홈 등 업체가 참가해 입주자들의 각종 수요에 만족을 주었다.

특히 스마트매트리스, 청소로봇 등 스마트가구의 인기가 매우 높다. 스마트가구의 기능, 가격 및 무상수리시간 등을 자문하는 관람객 뿐만 아니라 스마트매트리스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관람객들도 많았다. 이에 한 책임자는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품질 있는 건강생활을 추구하는 데서 스마트매트리스가 편안한 현장 체험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장에는 식품전시구역이 있어 관람객들은 가구를 고르는 외에도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많은 혜택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좋은 소비 경험을 제공한 이번 주택장식박람회는 말 그대로 인기 폭발이었다.

/ 손맹번 류항휘 기자



▲ 관람객들이 세탁기 판매일군에게 자문하고 있다.



◀ 현장에서 스마트매트리스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 전시된 음식을 맛보고 있는 관람객들



▲ 주방용품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

◀ 청소로봇의 세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



◀ 해당 일군이 인테리어 하려는 입주들에게 견적서를 보여주고 있다.



◀ 재미있는 판촉활동. 이긴 관람객들에게는 상품을 나누어 주었다.

첨단기술과 감성의 만남... 제 26회 장춘광고박람회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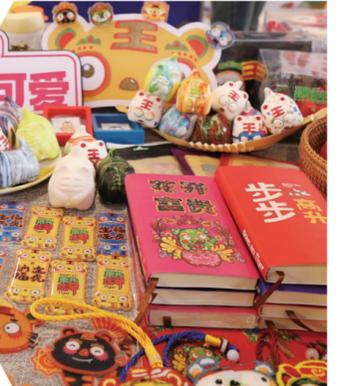


▲ 현장에서 기념 스티커를 찍고 있는 관람객들

제 26회 장춘광고산업박람회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장춘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많은 업계 종사자, 디자이너 및 창의 애호가들이 현장을 찾아 관람했다.

이번 광고박람회는 독창적이고 특색이 뚜렷했는바 국내외의 300여개 유명 광고회사가 참가했다. 약 2만평방미터 되는 전시장에서 도시라움 LED 조명제품전시회, 선물및문화창의제품전시회, 미화진렬조각및장식액자전시회, 인쇄포장및사무용품전시회 등이 열렸다.

현장에는 전통 광고에서 디지털 인터랙티브(数字互动) 광고까지 다양한 광고 제품들이 전시되어 광고 분야의 혁신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특히 가상현실 등 첨단기술로 제작된 제품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레하먼 특색 있는 스프레이 페인팅(喷漆) 재료와 선진 3D 프린트 기술 등 처음으로 선보인 신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동시에 일련의 첨단과학기술장비가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 각각각색의 문화 창의의 제품

이번 박람회에서는 4개의 주요 전시구역 또한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도시라움 LED 조명제품전시회는 최신 도시 조명 기술과 LED 제품을 선보이며 도시의 야경에 색채와 활력을 더해주었다. 선물및문화창의제품전시회는 다양한 창의적이고 독특한 제품을 내놓아 광고 업계에 더 많은 창의성과 선택의 폭을 제공했다. 미화진렬조각및장식액자전시회는 정교한 조각과 장식 액자 작품을 전시하여 광고 장식에 더 많은 예술적 요소를 제공했다. 인쇄포장및사무용품전시회는 최신 인쇄 기술과 포장 재료, 고품질 사무용품을 선보이며 광고 제작과 사무에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역의 업계 엘리트와 기업 책임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광고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기대가 크며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손맹번 류항휘 기자



▲ 3D 프린트 기술로 만든 미화 진렬 조각 '니타'



▲ 정교한 광고표지



▲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가 관람객들에게 기계의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있다.